

# 도전역 건설현장 긴급점검

원주지방국토청 오늘 시작

장마가 본격화되자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총점검이 실시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전만경)은 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전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점검을 벌인다.

국토청은 이기간 배수로 기능에 장애가 되는 토사류나 낙엽이 적재돼 있는지, 많은 빗물이 스며들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절개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어 건설현장의 장마철 대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점검하고 건설현장 주요 자재인 레미콘, 아스콘을 납품하는 공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피해가 우려

되는 사항은 즉시 응급복구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원주청은 지속적으로 도로, 하천 주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감찰을 실시해 건설공사 기간 건설 관계자들이 건설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현장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원주=유학렬기자 hyyoo@

# 장마철 업종따라 '울고 웃고'

## 태풍 북상에 건설·관광 전전긍긍 가전 업계 제습기 매출 상승 기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건설·관광·가전업계 등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일까지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마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건설업계는 공기 차질 등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 가전업계는 제습기 판매량 증가를 기

대하는 등 업종별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도 건설업계는 장마가 반갑지 않다.

특히 도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장마가 길어질 경우 공기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조성 사업의 경우, 절대공기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날씨에 민감한 관광업계도 기상청 예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여름휴가지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장마가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상청의 잘못된 기상 예보로 동해안 피서객이 감소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반면 가전업계는 장마로 인한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체에 빠진 제습기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국내 제습기 판매량은 2011년 25만대에서 2012년 45만대, 2013년 130만대까지 늘어났다가 최근 3년간 성장세가 멈췄다.

올 장마는 '장마다운 장마'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 때문에 제습기 판매 업체들의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도 경제단체 관계자는 "장마 북상은 건설과 관광업종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가전제품 납품 업체들은 장마 특수를 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